

조선청년학생들의 애국적투지와 불굴의 기개를 시위한 광주학생운동

박사 부교수 박 학 철

1. 서 론

지금으로부터 90년전인 1929년 11월 청년학생들이 스스로 떨쳐일어나 대오를 짜고 노도와 같이 거리를 누비며 항쟁의 광장으로 달려나갔던 광주학생운동은 조선인민은 식민지노예살이를 원치 않으며 우리 민족을 멸시하고 억압착취하는 포악무도한 일제에 견결히 항거해 싸운다는것을 전세계에 힘있게 과시한 대중적인 반일투쟁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광주학생운동은 일제식민지통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조선청년학생들의 애국적투지와 불굴의 기개를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기세를 크게 북돋아주었습니다.》(《김정일전집》 제5권 425페이지)

지난 기간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많은 경우 1920년대 중엽이후 벌어진 대중운동의 테두리안에서 단편적으로 취급되였다.

광주학생운동에 대하여 1929년 10월 30일 광주—라주사이의 기차칸에서 일본인중학생이 조선녀학생을 희롱한것이 계기로 되어 폭발한 반일투쟁이라고 하면서 간단한 소개로 그치고있으며 다른 연구성과들은 거의나 없다.

한편 남조선학계에서는 《한국사》(현대편), 《한국민족운동사》(최근세편) 등의 도서들에서 광주학생운동에 대하여 일정하게 론하였으나 개별적인 일본인들에 의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분석, 평가하고있다.

이 논문에서는 1920년대말 조선사회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불만과 강도 일제에 대한 쌓이고쌓인 민족적분노와 울분의 폭발이었던 광주학생운동을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특징의 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한다.

2. 본 론

2. 1. 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정책

조선인민의 거족적인 3.1인민봉기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일제는 1919년 8월 《문화통치》를 선포하고 조선인민을 철저히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식민지노예교육정책을 강행적으로 밀고나갔다.

3.1인민봉기직후인 1919년 4월 일제는 조선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교육은 서로 동일한 방침을 취할것. ...요컨대 일본의 연장으로 인정하고 조선을 동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로골적으로 떠벌이였다.(《하라 다카시일기》 일문 5 1965년 84페이지)

3.1인민봉기이후 일제가 실시한 《문화통치》가 종전의 무단통치와 구별되는 점은 우리 인민의 높아가는 반일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사상문화적공세를 전례없이 강화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제는 《문화통치》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는 교육정책을 《개편》하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식민지노예교육체계를 재정비하려고 하였다.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이었던 유미사구는 1919년 7월 《소요와 교육》이라는 연설에서 《독립운동(3.1인민봉기-필자)의 최대의 요인은 독립의욕》이며 《이 독립의욕만은 결코 장래에도 없어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자기가 조선인이라고 생각하고있는 동안에는 모든 조선인가운데서 독립의욕의 소멸을 볼수 없을것이다. 그러면 조선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소멸할 수단은 무엇인가. ...첫째로 교육을 보급하고 리성을 발달시키는것이다.》고 떠벌이었다.((《조선교육문제관견》 일문 1936년 85~86페이지)

일제는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1920년대에 새로운 식민지노예교육체계를 《문화통치》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였다.

일제는 무단통치시기에 실시하던 민족차별에 기초한 각급 학교의 학제를 일본과 동일하게 만들고 조선에 새로 대학을 내온다는 《개편》조치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하여 1922년 2월 6일 《칙령》 19호로 악명높은 《조선교육령》을 또다시 공포하였다.((《조선교육문제관견》 일문 1936년 123~127페이지)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조선의 새 세대들의 반일항쟁의지를 직접적으로 목격한 일제는 한편으로는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을 억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통하여 식민지통치의 사환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반교육체계를 꾸며냈던것이다.

일제가 떠벌인 교육정책의 《개편》이 극히 기만적이고 교활한 체계라는것은 1920년대에 벌어진 《학교창설》놀음에서 잘 나타났다.

3.1인민봉기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운 민족교육기관창설의 지향과 요구가 급격히 높아졌으며 일제에게 빼앗긴 민족교육기관을 되찾기 위한 반일애국교육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당시 우리 인민들이 벌린 학교창설운동은 애국애족정신의 발현으로서 민족교육운동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있었으며 그것은 반일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있었다.

교활한 일제는 학교창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지향을 받아들여 국가정책으로 《학교창설》을 보장하는듯이 가장해나섬으로써 애국적인 민족교육운동을 요람기에 없애버리고 그것을 기회로 저들의 식민지노예교육기관들을 꾸리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일제는 먼저 《3면1교》의 학교창설놀음을 벌렸다.

《3면1교》란 1919년부터 1922년까지의 기간에 3개 면에 1개씩의 6년제보통학교를 400개 내온다는것이였다. 그러나 일제의 《3면1교》책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1921년에 경성(서울) 시내 보통학교들의 입학정형을 보면 학령아동 1만 8 000명중 입학자는 불과 1 900명으로서 취학률은 겨우 10.5%였다.((《동아일보》 1921년 4월 16일부)

《3면1교》정책이 무엇을 추구한것인가에 대해 당시 총독부 학무국장 시바다가 《교육시설을 《3면1교》로 개정한 의도가 조선사람들의 향학열이 매우 성황하여 1면1교 혹은 의무교육제도와 같은 열렬한 요망이 일어나니 당국으로서는 이를 억누르려는데 있었다.》고 한 실도를 통해서 잘 알수 있다.((《조선통치비화》 일문 1937년 280~281페이지)

일제는 고등교육부문에서도 관제대학설립놀음을 벌임으로써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에 요구되는 저들의 사환군을 직접 길러내고 당시 우리 나라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던 민립대학창설운동을 압살하려고 책동하였다.

일제는 1922년 3월 새로 개악한 《조선교육령》 제12조에서 《대학교육 및 그 예과교육은 대학령에 의거한다.》고 규정하고 다음해 11월에는 《대학창설위원회》를 따로 조작하여 관제대학창설을 위한 놀음을 벌렸다.

일제가 조작한 《대학창설위원회》에는 새로 부임한 학무국장 나가노를 비롯한 총독부의 관리들과 일본인교육관계자들이 망라되었으며 그 성원 17명가운데 조선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일제는 그후 1924년 5월 《칙령》 104호로 《경성제국대학관제》를 공포하고 경성제국대학이 일본본토의 《제국대학령》에 의거한다고 규정하였다.

2. 2. 광주학생운동의 원인과 동기

1929년 광주학생운동은 그 어떤 우발적인 계기에 의하여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으며 그 밑바닥에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라는 명백한 원인이 깔려있었다.

광주학생운동이 벌어지게 된 원인을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아래에 몇건의 자료를 제시한다.

《...그해에 온 가족이 먹고 살 식량을 눈을 딱 감고 팔아서 죽자하고 우편국에 들어민 눈물겨운 학비가 얼마나 많은 사연이 깃들어있는가 하는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은것이다. ...절박한 경제문제는 그들로 하여금 일시도 마음 편히 지낼 날이 없게 한다. ...한사람의 조선청년이 가슴에 품고 물러서는 한장의 졸업증서야말로 걱정과 눈물의 결정이다.》(《해방》 1931년 3호)

《경상북도 대구고등보통학교에서는 금년 새 학기가 열리면서 돌연히 이 학교 2, 3, 4학년 생도(학생) 14명에 대하여 ...퇴학처분을 하였는데 ...원인을 듣건대 수일전 이 학교 일본인 모교원이 일본력사를 가르치면서 지난 임진왜란때 공을 세운 충무공 리순신을 적이라고 말함으로 생도측에서는 리순신은 조선의 유명한 명장이란 말을 들었는데 적이라는것은 무슨 말인가고 질문을 제기한것으로 하여 이와 같은 피상한 처분을 하였다더라.》(《동아일보》 1928년 4월 3일부)

이러한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당시 조선의 청소년들앞에 가로놓인 헤여날 길 없는 생활난과 학비난, 항시적으로 강요당하는 민족적모욕에 기초한 노예교육, 졸업이후의 열악한 취업형편 등은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정책에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하였으며 그것은 곧 1929년의 광주학생운동발발의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청년학생들의 반일의식이 고조되고 민족적대립감정이 극도로 첨예해지고있던 1929년 10월 3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조선인학생들과 일본인학생들사이에 큰 충돌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라주에서 광주로 통학하던 학생들이 타고있던 통학렬차안에서 일본남학생들이 조선녀학생들에게 모욕적언사를 던지며 희롱하는 추태를 부리였으며 그들이 기차에서 내

려 개찰구로 나가려 할 때도 앞길을 가로막고 무례한 행동을 하였다.

이 광경을 보고있던 조선남학생들이 일본학생들의 무례한 행동을 단죄하자 그들은 도리어 제편에서 고향을 지르면서 《센징》이라는 모욕적언사까지 써가며 도발적으로 싸움을 걸어왔다.

당시 《동아일보》는 《사건발단의 직접원인은 일인(일본인－필자)중학생의 조선녀학생 희롱에서》라는 제목으로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0월 30일에 광주에서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에 통학하는 박기옥(18살)이라는 녀학생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경에 기차를 타고 광주로부터 라주로 돌아올 때에 ...광주중학교 생도로서 역시 라주에서 통학하는 일본인학생 다나까, 후꾸다, 스에요시 등 세명이 앞을 막고 조롱을 하므로 박기옥은 아무 말없이 피하려 하였으나 전기 일본인학생들은 피하는 쪽을 쫓아다니며 희롱을 일층 심하게 하는것을 ...광주고보생 박준채라는 조선인학생이 몇마디 말로써 그 무리함을 질책하였던바 일본인중학생들은 도리어 고향을 치며 덤벼들어 싸움이 되려 할 때 동 역구내에 있던 순사는 박준채의 뺨을 때리면서 ...돌아가게 하였으나 이것저것으로 압축된 기압과 같이 항상 불끈볼끈하던것으로 필경 폭발될 기미를 가지고있었던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것이다.》(《동아일보》 1929년 12월 28일 호외)

일제경찰의 횡포한 처사에 조선학생들은 격분하였다.

다음날인 10월 31일 통학렬차안에서 조선학생들은 일본학생들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인학생들은 조선학생들의 응당한 제의에 응할 대신에 오히려 제편에서 싸움을 걸면서 그들을 마구 구타하는 망동을 부렸으며 그로 하여 차칸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때 일본인차장은 《단속》을 구실로 조선학생들을 2등칸으로 끌고갔는데 거기에 있던 《광주일보》사의 기자들을 비롯한 일본인들은 사건전말에 대해서는 알고도 않고 일본학생들을 두둔하면서 조선인인 주제에 건방지다느니, 잘못은 조선학생들에게 있다느니 하는 폭언을 마구 던지였다.

한편 일제의 어용신문인 《광주일보》는 철면피하게도 이 사건의 진상을 외곡하여 보도하면서 사건의 책임을 조선학생들에게 넘겨씌우고 사건의 진상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역전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적반하장격으로 조선학생들에게 《죄》를 들씌우는 이 도발적사건은 극도의 민족차별 정책으로 갖은 수모를 당해오던 조선청년학생들의 반일감정에 불을 달아주는 도화선으로 되었다.

11월 1일 일본인학생들과 교직원 300여명은 보총과 단도로 무장하고 광주역전으로 몰려가 통학렬차를 기다리는 50여명의 조선학생들에게 전날 저들의 횡포를 징계한 학생을 내놓으라고 웨쳐대면서 각종 흥기를 휘둘러댔다.

무장한 일본인학생, 교원들과 조선학생들사이에 격투가 벌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농업학교와 광주사범학교, 광주고등보통학교의 기숙사에 있던 150여명의 학생들이 즉시 현장에 달려왔고 광주정미소로동자들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은 맨주먹인 조선학생들에게 울타리를 헐고 장작더미를 헤쳐 몽둥이를 쥐여주며 학생들의 투쟁을 지원하였다.

이날 일본불량배들의 란동에 의해 수십명의 조선녀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부상당하였다.

10월 30일과 31일, 11월 1일 광주지역 학생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만행은 가혹한 식민지적억압과 착취로 하여 쌓인 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원한과 울분을 폭발하게 한 직접적인 동기로 되었다.

2. 3. 광주학생운동의 발발과 확대발전

2. 3. 1. 광주학생운동의 발발

광주시내 여러 학교의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을 망라하고있던 《독서회》를 비롯한 비밀 조직들에서는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과 민족차별대우를 반대하는 광주시내 전체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중적반일투쟁을 벌릴것을 계획하고 그 준비를 다그쳤다.

학생조직들은 시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불러일으키는 선동배라들을 등사, 배포하고 시위대렬을 편성하는것과 함께 투쟁개시날자를 11월 3일로 정하였다.

청년학생들이 11월 3일을 투쟁개시일로 정한것은 이날이 일제가 그 무슨 산전(누에 고치생산-필자)6만석돌과를 《축하》하는 모임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이고 또 장날이어서 광주주변의 여러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있었기때문이었다. 또한 이날이 명치《천황》의 생일인것으로 하여 《경축》행사놀음에 많은 청년학생들이 끌려나오며 따라서 그들을 조직적으로 결기시키는데 유리하였기때문이었다.

11월 3일의 투쟁은 우선 광주고등보통학교의 학생들이 《경축식》마당에서 일제가 강요하는 일본국가와 《신사참배》를 일제히 거부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경축식》에 모였던 광주고등보통학교를 비롯하여 광주사범학교와 광주농업학교의 약 1 000명의 학생들은 대오를 지어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노예교육제도를 폭로규탄하는 연설을 하고 배라를 뿌리면서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한 대오는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광주일보》사를 포위하고 사건을 날조하여 보도한 신문기사를 당장 취소할것을 요구하면서 인쇄기들을 파괴하였다.

한편 광주우편국앞을 행진해가던 학생들의 한 대오는 일본인학생들과 치열한 격투를 벌리였으며 광주역전에서도 180여명의 학생들이 일본인학생들과 싸움을 벌렸다. 광주역전에서 일본인학생들과 싸움을 벌리고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기숙사에 남아있던 광주고등보통학교의 학생들과 광주농업학교의 학생들까지 달려와 합세함으로써 투쟁대렬은 삽시간에 200여명으로 늘어났다.

조선학생들의 투쟁이 고조되자 현장에 출동한 일제경찰들은 총을 쏘고 소방차로 물을 뿌리면서 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미쳐날뛰였으며 단도를 비롯한 흉기로 무장한 일본인 학생, 교원들도 더욱 기승을 부리였다. 이 싸움에서 총칼을 휘두르는 일제경찰들과 일본인학생들의 폭력행위로 30여명의 조선학생들이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같은 시각 광주도립병원쪽으로 행진하던 다른 한 학생대렬도 경찰저지선을 돌파하면서 완강히 투쟁하였지만 총칼을 휘두르는 일제경찰의 탄압행위로 해산되었다.

일제경찰의 탄압으로 일단 대오를 해산한 청년학생들은 이날 12시경에 광주고등보통학교의 강당에 모여 오전에 있는 투쟁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

피흐르는 상처를 부여잡고 토론무대에 오른 학생들과 학생대표들은 모두가 끝까지

싸울것을 결의해나섰으며 일제경찰과 불량배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자기들도 일정한 무장을 갖추고 대오를 지어 시내중심거리를 행진할것을 결정하였다.

모임이 끝난 후 청년학생들은 광주고등보통학교의 농기구실에 들어가 문을 까부시고 곤봉과 팽이자루, 참대칼, 야구방망이, 양잠용기구들을 각각 휴대하고 학교운동장에 모여 25명씩 줄을 맞춰 대오를 다시 편성하였다.

13시경에 교문을 나온 학생들은 합성을 지르면서 시내로 행진하기 시작하였으며 광주시내의 다른 학교학생들과 산전6만석돌파《축하》모임에 참가하였다가 해산된 일반시민들까지도 이에 합세하여 대렬은 삽시에 3만명으로 늘어났다.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녀학생들과 시민들도 거리로 달려나와 봉대와 약품을 가지고 부상당한 학생들을 처치하고 물그릇을 안겨주는 등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학생들의 폭력적진출에 질겁한 일제경찰은 요소마다 진을 치고 그들의 투쟁을 막아 보려고 하였으나 학생들의 세찬 전진을 멈춰세울수 없었다.

이날의 투쟁에 대하여 《동아일보》는 《학생충돌, 초일광경》이라는 제목을 달고 《...시민들도 더 합하여 무려 3만인의 행렬이 되자 경찰서에서는 경종을 무수히 울리며 소방수를 출동케 하여 진무에 전력하니... 당시의 광주시내는 전시상태를 방불케 하였다고 한다.》고 전하였다.(《동아일보》 1929년 12월 28일 호외)

광주시내의 학생들이 일제히 반일투쟁에 진입하자 당황망조한 일제경찰은 전라도 각지에 조직되어있던 저들의 무장《자위대》, 소방대, 제향군인단, 청년단, 전라남도청년련합회, 각 학교의 일본인교원, 일본인학부형들까지 총동원하여 학생탄압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증강된 일제경찰의 대대적인 탄압만행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쓰러졌으며 대오는 더 전진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11월 3일 투쟁은 치열한 격투를 동반하면서 일반시민들까지 합세한 수만명의 군중시위투쟁으로 벌어졌으며 그것은 일제에게 된 타격을 안기였다.

11월 3일의 투쟁은 일제의 야수적탄압만행으로 일단 해산되었으나 보다 큰 규모의 반일투쟁으로 확대발전하는데서 결정적계기로 되었다.

2. 3. 2. 광주학생운동의 확대발전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만행으로 말미암아 온 광주거리는 살벌한 분위기에 휩싸였으나 무차별적인 탄압이 가해질수록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은 더욱 고조되었다.

광주의 청년학생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만행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신문들을 통하여 삽시에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조선일보》는 《단도는 중학생과 충돌되어 경찰로만 부족하여 소방대까지 출동》이라는 제목으로 《...3일 오전 11시경에 광주고보생이 ...우편소앞 지점에서 단도를 휴대한 광주중학교(일본인학교-필자) 학생과 충돌되어 일대 란투를 연출한것이 실머리로 오래동안 울분에 쌓여있던 저기압은 드디어 폭발되었는데 이 급보를 접한 광주고보와 광주중학교의 학생들은 일제히 합성을 지르고 현장에 달려와서 삽시에 일대 수라장으로 연출하게 되었다. 이 급보를 접한 광주경찰서에서는 경찰서의 힘만으로는 진압할수가 없었던지 즉시 경종을 요란하게 울려 소방대를 출동케 하여 간신히 진압하였는데 광주고보 학생중에

는 …10여명이 안면과 머리에 부상을 당하고 치료받는중이라더라.》라고 보도하였다.((조선일보》1929년 11월 5일호)

이러한 소식에 접한 전국의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한결같이 일제의 야만적인 탄압만행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광주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각지의 청년학생들은 광주의 학생들처럼 들고일어나 일제와 싸울것을 결의하였으며 각계층 인민들도 광주학생운동을 지지성원하였다.

광주학생운동을 계기로 전국적범위에서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이 급격히 고조되고있는 환경속에서 여러 사회단체들은 광주학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못하고 이 사건을 더욱 여론화하는 운동을 벌렸다. 11월 9일을 전후하여 신간회, 조선청년총동맹, 조선학생전위동맹,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 많은 사회단체성원들이 제각기 광주에서 진상을 조사하는 한편 대중적인 반일투쟁을 계획하였다.

여러 사회단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들의 주의주장에는 서로 차이가 있었지만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격분을 금할수 없게 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반일투쟁이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결합될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있었다.

이러한 추이를 반영하여 그후 경성(서울)에서는 각지에 조직되어있던 광주학생운동옹호동맹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사명을 띤 광주학생운동옹호동맹지도본부가 조직되었다.

여러 사회단체들의 임시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진 광주학생운동옹호동맹지도본부는 일제의 탄압과 삼엄한 경계에 대처할 전략전술적대책을 바로세우지 못하고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는 자체의 조직체계를 세우지 못한것으로 하여 그리고 자파세력확장을 목적으로 한 종파분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의 분파적책동 특히 일제가 조직내부에 박아넣은 밀정들에 의하여 전국적인 반일항쟁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확대발전시킬수 없었다.

그러나 전국각지에서는 반일투쟁들이 계속 벌어졌다.

광주의 청년학생들은 이미 결의했던 재 결기를 위한 준비를 다그쳐나갔다.

독서회성원들을 비롯한 광주시내의 여러 학생조직대표들은 11월 10일 모임을 가지고 투쟁방법을 토의하는 한편 당일에 쓸 삐라와 격문을 작성, 인쇄하였으며 11월 11일에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던 투쟁날자를 장날인 11월 12일로 변경시켰다.

그들은 당일날 아침모임 혹은 첫 수업시간도중에 학교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반일선동연설을 하여 전교의 학생들을 불러일으키면 일시에 전체 학생들이 거리로 펼쳐나가 시위행진을 벌리기로 하고 시민들과 청년학생들에게 줄 격문 2 000여매를 작성하여 각 학교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11월 12일 광주시내의 각 학교학생들은 첫 수업시간도중에 일제히 고함을 치며 교실밖을 뛰쳐나와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광주고등보통학교에서는 아침모임시간을 계기로 400여명의 학생들이 학교창고안의 농기구를 꺼내들고 격문을 뿌리면서 거리로 뛰쳐나갔다. 광주사범학교와 광주농업학교, 광주녀자고등보통학교를 비롯한 광주시내의 모든 학교들에서 1 000여명의 학생들이 일시에 시위행진에 돌입하였다. 투쟁에 또다시 펼쳐나선 학생들은 격문을 뿌리고 반일적인 선동연설을 하면서 광주형무소를 향하여 행진해나갔다.

학생시위대렬이 광주도립병원앞에 이르자 일제경찰은 시위대렬을 향하여 소방차로

물을 뿌리고 총을 쏘아대면서 대렬을 해산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구호를 웨치면서 대렬을 수습하고 방향을 바꾸어 행진을 계속하였다.

이날 투쟁에는 전체 광주 시내의 남녀학생들뿐아니라 그들의 학부형들과 일반시민들도 참가하였다.

일제는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린접군에서까지 경찰력량을 끌어들이며 300여명의 학생들을 체포하였다.

이날의 학생들의 투쟁소식은 곧 광주의 여러 주변지역들에 퍼져갔으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라주와 목포를 비롯한 광주 주변지역의 청년학생들도 동맹휴학과 시위투쟁에 떨쳐나섰다.

제일먼저 11월 19일 목포상업학교에서 광주학생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성원의 투쟁을 벌리었다. 이날 이 학교의 100여명의 조선인학생들은 대렬을 짓고 노래를 부르며 시내를 시위행진하였다. 학생들은 전선줄을 끊어버리어 학교와 경찰서와의 련계를 차단하는 한편 곳곳에 선전삐라를 뿌리고 만세를 웨치면서 반일시위투쟁을 벌렸으며 앞을 가로막는 100여명의 일제경찰의 포위를 뚫기 위하여 격투를 벌리면서 끝까지 투쟁하였다. 이 투쟁과정에 일제경찰은 40여명의 학생들과 신간회 목포지회성원들 10여명을 체포해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광주학생들에 대한 지지성원의 투쟁은 라주에서도 세차게 벌어졌다. 광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광주학생사건이 라주와 광주간의 통학렬차안에서 발단된것으로 하여 그들의 반일감정은 더욱 고조되였다.

11월 27일 대규모적인 반일시위투쟁에 떨쳐나선 라주의 실업보습학교와 농업보습학교, 보통학교의 500여명 학생들은 《조선학생대중 만세!》, 《조선인본위의 교육제도를 실시하라!》 등의 구호밑에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자유를 찾자는 선전삐라를 뿌리면서 행진하였다.

라주시내학생들의 시위투쟁에 이어 11월 30일에는 라주 송정리국민학교 학생들도 투쟁에 떨쳐나 광주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11월말까지 광주 시내의 주변지역들에서 광주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벌어진 학생들의 투쟁건수는 9건에 달하며 이 투쟁들에는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광주의 주변지역들에서 벌어진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광주학생운동의 전국적확대를 촉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12월에 들어서면서 청년학생들은 각 도의 주요도시들에서 동맹휴학과 시위투쟁을 벌리었다.

경성(서울)의 청년학생들의 12월투쟁은 대대적인 삐라살포로부터 시작되였다. 12월 2일 밤과 3일 새벽을 리용하여 경성고등보통학교, 휘문고등보통학교와 중앙고등보통학교, 여자상업학교 등 각 중등학교의 학생들은 시내곳곳의 건물과 담벽, 전선대 및 자기 학교건물들에 청년학생들을 반일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삐라와 격문들을 붙이거나 뿌리어 새로운 투쟁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삐라살포투쟁에 이어 대대적인 반일시위투쟁이 전개되였다. 12월 4일 경성휘문고등보통학교와 중앙고등보통학교의 학생들이 시위투쟁에 일떠섰으며 12월 5일에는 시내의 여러 학교학생들이 일제히 동맹휴학을 단행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투쟁을 단행하였다.

경성휘문고등보통학교 학생 300여명을 비롯한 시내 각 학교학생들은 《광주학생을 석방하라!》, 《광주학생이 석방될 때까지는 공부할수 없다.》고 웨치면서 시내 곳곳에 배치된 경찰의 저지선을 박차고 거리로 행진하였다.

투쟁에 나선 각 학교의 청년학생들은 9일 아침 학부형들과 전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으면서 식민지통치의 아성인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돌진하였다. 경찰관강습생까지 총동원된 수백명의 무장경찰이 청년학생들의 시위대렬을 향하여 총을 쏘아댔으나 격분한 학생들은 곳곳에서 경찰들과 치열한 격투를 벌리면서 오래동안 투쟁을 계속하였다. 이날 하루동안에만도 일제경찰은 1 200여명의 학생들을 검거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동아일보》 1929년 12월 28일 호외)

청년학생들의 반일투쟁은 평양에서도 힘차게 벌어졌다.

평양에서의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숭실전문학교와 숭실중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세차게 벌어졌으며 이곳 학생들은 평양의 청년학생들을 반일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앞장에 섰다. 12월 14일 숭실전문학교의 학생들은 일제히 시험을 거부하고 시험장에서 백지를 제출하는것으로 항거하였으며 그에 뒤이어 16일과 17일 숭실중학교, 광성고등보통학교, 녀자고등보통학교, 농업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학생들이 동맹휴학과 백지동맹투쟁을 벌렸다.

12월기간 전국적으로 볼 때 청년학생들의 반일투쟁은 시위, 동맹휴학, 백지동맹, 시험거부 등 여러가지 형태로 벌어졌으며 그 건수는 무려 60여건에 달하였다.

청년학생들의 반일투쟁은 1930년 1월에 들어서면서 더욱 큰 규모로 확대발전하였다.

이 시기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주요도시들의 범위를 벗어나 린접지역으로 번져갔으며 여기에 노동자, 농민들까지 합세함으로써 더욱 고조되었다.

1월 8일 신의주고등보통학교에서는 개학식때 교장의 훈시가 끝나자 한 학생이 연단에 뛰어올라 눈물을 뿌리며 광주학생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연설을 하면서 전체 학생들이 퇴장할것과 즉시 시위투쟁을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이 호소에 호응하여 전교의 학생들은 경찰과 학교당국자들의 포위를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가 반일시위투쟁을 벌리었다. 같은 날 개성에서도 송도고등보통학교와 호수돈녀자고등보통학교 학생 500여명이 격렬한 반일연설을 하고 뼈라를 뿌리면서 시위투쟁을 단행하였다.

송도고등보통학교에서는 8일 개학날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며 9일 아침 모임때에는 광주학생들을 성원할데 대한 연설에 이어 전체 학생들이 일제히 행렬을 지어 거리로 떨쳐나갔으며 여기에 호수돈녀자고등보통학교 250여명의 학생들까지 합류되어 대렬은 삽시에 500여명으로 늘어났다. 학생들은 남대문부근까지 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진행하였으며 탄압에 동원된 무장경찰들과의 충돌을 벌리면서 파출소앞까지 전진하였다.

1월 11일 함흥영생고등보통학교 학생 400여명은 아침모임을 마친 후 광주학생들의 투쟁을 성원하기 위한 선동연설을 하면서 함흥영생고등녀학교 학생들과 합류하여 만세시위투쟁을 벌렸다. 이날 학생들은 경성(서울)의 조선총독부까지 쳐들어갈 충천한 기세로 완강한 투쟁을 벌렸다.

1월 14일 평양승인상업학교 400여명의 학생들은 만세시위투쟁을 벌리려다가 일제경찰에 저지되고 많은 학생들이 체포된 조건에서도 악대를 앞세우고 종로일대에 각종 뼈라

들을 뿌리면서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반대하며 구속자를 즉시 석방할것을 요구하여 강력한 시위투쟁을 벌렸다.

1월 21일 평양숭실중학교와 숭실전문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또다시 투쟁에 떨쳐나 앞을 가로막는 경찰들과 격투를 하면서 시위투쟁을 벌렸다.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각 도의 주요도시들뿐아니라 가까운 부, 군들까지에도 급속히 파급되어 1930년 1월에 들어와서는 전국의 13개 도를 휩쓸었다.

이 시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도 더욱 전개되었다.

부산방직공장의 2 300여명 노동자들은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지지성원의 표시로 1월 9일 총파업을 단행하고 임금인상, 8시간노동제의 실시,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대우폐지 등의 요구조건을 들고 투쟁에 일떠섰다. 일제가 경찰, 재향군인, 소방대 등을 총동원하여 파업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공장문을 폐쇄하며 녀직공 800여명을 기숙사안에 감금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파업진압에 미쳐날뛰었으나 그들은 뼈라와 격문을 살포하면서 시위행진을 벌렸으며 기숙사에 감금된 녀직공들도 단식투쟁으로 항거하였다.

함남노동조합의 300여명 노동자들이 동정파업을 일으킨것을 비롯하여 부산방직공장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등 광주학생운동을 지지성원하는 파업투쟁이 여러곳에서 일어났다.

한편 김해, 홍남, 천안 등 각지의 광범한 농민들도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면서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에 고무되어 부산제2상업학교를 비롯한 부산시안의 청년학생들은 부산방직공장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벌어지던 1월 12일과 13일사이에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벌림으로써 일제경찰을 당황망조케 하였다. 부산제2상업학교 학생들은 《학원에 대한 경찰간섭 절대반대!》, 《광주학생에게 가해한자를 엄벌하라!》, 《광주학생피검자들을 무조건 석방하라!》, 《식민지노예교육제도 절대반대!》 등의 구호를 들고 시위투쟁을 벌렸다.

원산에서도 17일 10시 청년학생들이 수업종이 울리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시위투쟁을 벌렸으며 여기에 원산루씨녀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까지 호응하여 대렬은 급속히 늘어났다. 그들은 원산주재소앞에서부터 행렬을 짓고 《피검된 학생들을 석방하지 않겠으면 우리들도 다같이 체포하라!》고 웨치면서 원산경찰서를 향하여 돌진하였다. 원산부두노동자들이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었다.

청년학생들의 반일투쟁은 1930년 2월과 3월에도 계속 벌어졌다.

이 기간에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검거구속된 학생들에 대한 일제의 《공판》놀음을 반대하고 일제경찰의 만행을 폭로규탄하는 방향에서 주로 벌어졌다.

2월 19일과 20일에 광주학생사건관계자 49명의 학생들에 대한 2차《공판》이 광주에서 벌어지자 일제의 부당한 《공판》을 반대하는 투쟁들이 전개되었다. 《공판》소식이 《조선일보》 2월 21일과 22일부에 게재되자 전국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그를 단죄하여 다시금 투쟁에 떨쳐나섰다.

공판 당일인 2월 19일 광주의 청년학생들은 일제히 수업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경성(서울)의 중앙고등보통학교를 비롯한 10여개의 학교학생들은 일제히 동맹휴학에 돌입하였다.

광주고등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한 교원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철창속에서 철

쇄를 차고 《피고》로 법정에 나서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과 학교당국의 처사를 반대하여 결연히 사직하였으며 개성녀자상업학교의 한 교원은 일제경찰이 학생들의 투쟁을 진압하려고 교실안으로 마구 들어오려고 하자 《교실에는 경찰이 들어올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의 앞을 가로막아나섰다.

광주에서는 철창속에 갇힌 학생들의 학부형들이 《재감학생부형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일제의 《공판》당시 경찰이 저지른 죄행을 기록한 문건들을 등사하여 전국에 발송하면서 일제의 불법행위를 폭로규탄하였다.

2월 27일 념변에서는 소림보통학교 200여명의 학생들이 선두가 되어 격문을 산포하고 기발을 흔들며 시위투쟁을 벌렸으며 어린아이들까지 합세하여 만세를 부르고 구호를 웨침으로써 큰 파문을 일으키고 청년학생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일제경찰의 모진 탄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투쟁은 2월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50여건이나 벌어졌다.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3.1운동기념일을 계기로 평양과 경성(서울), 함흥, 경성(함경북도), 김해, 삼례 등 전국각지에서 벌어졌다. 3월 1일과 2일 경성(서울)에서는 보성전문학교와 법학전문학교를 비롯하여 중앙고등보통학교, 경신학교, 휘문고등보통학교, 중등학교, 배제고등보통학교 등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3월 5일에는 회령상업학교의 학생들이 동맹휴학투쟁을 단행하였으며 념변, 박천, 삼례, 려수, 성진, 홍원 등 전국각지의 학교들에서 동맹휴학투쟁들이 벌어졌다.

이 시기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감옥에서도 적극 벌어졌다. 3월 1일을 맞으며 광주형무소를 비롯한 감옥들에 갇힌 학생들은 일제히 감방벽을 두드리며 《독립만세!》를 웨치고 감방으로 들어온 밥그릇을 깨버리고 대우개선을 요구하여 단식투쟁을 벌렸다. 배제고등보통학교 5학년생인 한 학생은 자기를 《재판》하는 법정에서 《죄행》을 말하라는 재판관의 요구에 대해 자기가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쓴 기발을 대오의 앞장에서 흔들며 나가던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면서 피혼적이 생생한 기발을 재판관앞에 펼쳐보이고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국내에서 활발히 벌어진 청년학생들의 반일투쟁은 중국동북지방과 연해주, 일본 등 조선사람들이 살고있던 해외의 여러 지역들에까지 번져갔다.

1월 12일 북평에 살고있던 동포들은 화북대학강당에서 름시대회를 열고 광주학생사건에 대한 진상보고를 청취한 후 반일투쟁선언서를 발표하였으며 1월 28일 상해에서도 1 000여명의 동포들이 일제의 만행을 단죄하는 군중대회를 열고 상해주재 일본령사관을 향하여 시위행진을 진행하였다.

울라지보스포크와 하바롭스크 등지에서도 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 투쟁들이 진행되었으며 일본에서 공부하는 조선인학생들속에서도 투쟁열기가 세차게 타올랐다.

그러나 국내외의 여러 지역에서 세차게 벌어진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반일투쟁은 많은 경우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일제의 탄압책동에 의하여 실패로 끝나고말았다.

2. 4. 광주학생운동의 특징

광주학생운동은 3.1인민봉기와 6.10만세시위투쟁과 더불어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폭압책동에 대한 조선청년학생들의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었으며 그들의 애국심과 단결력, 용감성을 남김없이 과시한 의의있는 투쟁이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큰 타격을 준 광주학생운동은 이전시기에 벌어진 청년학생들의 투쟁과 차이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여 투쟁목표와 구호가 이전의 투쟁들보다 뚜렷하게 제시되고 조직화수준이 훨씬 높아진것이었다.

광주학생운동당시 청년학생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의 요구가 반영된 견결한 반일투쟁 구호들을 제시하고 과감히 투쟁하였다.

11월 12일 투쟁에 펼쳐나선 광주의 청년학생들은 《용감히 싸우라, 학생대중아!》라는 제목밑에 《검거자를 우리의 힘으로 탈환하자! 교내경찰관침입을 반대한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획득하자! 조선인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자!》는 구호를 제기하였다.((현대사자료》일문 제29권 미스즈서방 1972년 366페이지)

라주실업보습학교와 농업보습학교, 보통학교의 학생들도 11월 27일 《학생대중이여! 아느냐! 우리들이 어떠한 강압과 폭압을 받고있는가?》라는 표제밑에 《보라, 광주학생총돌사건을! 그들의 편협한 행동과 포악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가? 사태가 학생사건이므로 학교당국에 일임하여 해결하게 하는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법관 또는 경찰관의 출동은 무슨 망동이나? 우리도 인간으로서의 자유가 있어야 할것이다. 오늘날 어찌하여 이와 같은 압박을 받고있는것인가. 우리는 힘을 가지고 싸워서 자유를 획득할것이다. 우리는 힘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위로서 대중의 각성을 높일것이다. 피압박민족해방 만세! 식민지탄압정치에 절대반대하라!》는 격조높은 내용의 구호를 제기하였다.((조선에서의 동맹휴교의 고찰》일문 조선총독부 1930년 72페이지)

다음해 1월 11일 투쟁에 결기한 함흥상업학교와 함흥영생고등보통학교 학생들역시 《모여라, 싸워라, 피압박민중이여! 3천리강산을 붉은 피로 화강하더라도 싸워라! 맨손을 서로 잡고 우리의 원쑤인 지배계급을 향하여!》라는 구호를 내들고 일제경찰과의 치렬한 격전을 벌렸다.((형공》일문 제76호 1930년 3월 27일 경성복심법원 형사부)

보는바와 같이 당시 청년학생들이 제기한 구호들에는 3.1인민봉기나 6.10만세시위투쟁에서 청년학생들이 제기하였던 구호보다 명백한 요구조건들이 제기되고있는것이 주목되고있다. 다시말하여 식민지노예교육의 반대와 조선인본위의 교육제도의 수립,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며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탄압을 반대하고 피압박민족의 해방을 촉구하는것과 같은 내용의 투쟁목표와 구호가 강하게 제기되고있다.

조직화수준의 측면에서도 광주학생운동은 이전시기의 청년학생들의 투쟁보다 발전하였다.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한 1929년 11월초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기간에 벌어진 청년학생들의 동맹휴학 및 시위투쟁을 비롯한 각종 반일투쟁들에 참가한 학교수는 총 194개였으며 그에 참가한 학생수는 무려 6만여명에 달하였다.

그것을 각 도별로 보면 다음 표와 같다.

| 각 도별 | 중등 및 전문학교 | | 초등학교 | | 계 |
|------|-----------|----|------|----|-----|
| | 관공립 | 사립 | 공립 | 사립 | |
| 평안남도 | 8 | 10 | 5 | 4 | 27 |
| 평안북도 | 2 | 5 | 7 | | 14 |
| 황해도 | 2 | - | 1 | | 3 |
| 함경북도 | 9 | - | 9 | 1 | 19 |
| 함경남도 | 5 | 3 | 3 | 1 | 12 |
| 강원도 | 2 | - | - | - | 2 |
| 경기도 | 12 | 31 | - | 3 | 46 |
| 전라북도 | 3 | 4 | - | - | 7 |
| 전라남도 | 9 | 2 | 11 | - | 22 |
| 충청북도 | 3 | - | 3 | - | 6 |
| 충청남도 | 7 | 1 | 3 | - | 11 |
| 경상남도 | 8 | 3 | 9 | - | 20 |
| 경상북도 | 5 | - | - | - | 5 |
| 합계 | 75 | 59 | 51 | 9 | 194 |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 1929년 10월—1930년 3월 참조)

(《현대사자료》 일문 제29권 참조)

이러한 사실들은 그 이전시기의 청년학생들의 투쟁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새로운 경향으로서 이 시기 청년학생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자각과 반일의식이 훨씬 높아졌음을 보여주고있다.

2. 5. 광주학생운동이 남긴 교훈

광주학생운동은 1920년대말 우리 나라의 청년학생들이 일제를 반대하여 벌린 대중적인 항쟁으로서 조선인민의 민족적기개를 떨치고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큰 타격을 준 의의 있는 투쟁이었다.

광주학생운동은 우리 인민의 높은 애국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시위한 투쟁이었다.

일제는 광주학생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일본수상의 총지휘밑에 군대와 경찰, 《재향군인회》와 소방대 등 수많은 폭압력량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으며 우리 인민과 조선청년학생들의 투지를 꺾어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일제의 류혈적탄압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제놈들과 싸워 놈들을 전멸케 하였으며 조선인민은 절대로 일제의 노예가 아니며 자주성을 가진 존엄있는 민족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광주학생운동은 1920년대말~1930년대초에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노동자,

농민들의 반일투쟁을 련속적으로 유발시키는데서 기폭제적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식민지나라의 청년학생들은 어느 계급, 계층보다 먼저 각성하고 반제투쟁에 일떠설뿐아니라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민족적 및 계급적각성을 촉진시키고 그들속에 투쟁의 씨앗을 뿌리는 매개자적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학생운동은 그자체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큰 타격으로 되었을뿐아니라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의 민족의식, 계급의식을 크게 각성시키고 광범한 대중을 투쟁에 합류시켰다. 평양과 함흥, 경성(서울)과 부산, 광주를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인민들이 학생들의 투쟁에 합류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해당 지역에서의 식민지통치를 마비상태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광주학생운동은 여러가지 제한성으로 하여 일제의 탄압을 막아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말았으며 따라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에 심각한 교훈을 남기었다.

광주학생운동의 교훈은 첫째로 사회의 진보와 민족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혁명운동에서 승리하자면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것이다.

혁명적당의 령도는 혁명투쟁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혁명적당의 령도가 보장되지 못함으로 하여 광주학생운동은 전국적규모에서 치렬하게 벌어졌지만 일제의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광주학생운동당시 이미 조직되었던 조선공산당은 종파분자들의 파쟁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며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던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은 1920년대초부터 양양되기 시작한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을 자파세력확장에 리용하려고 책동하였다.

한편 광주학생사건이 발발하자 신간회를 비롯하여 조선학생전위동맹, 조선과학연구회, 조선청년총동맹 등 여러 대중단체들은 제각기 진상을 조사하고 자기들대로의 투쟁계획을 세운다고는 하였지만 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우지 못하고 정확한 투쟁방도를 제기하지 못함으로 하여 투쟁이 산발적으로 벌어지게 하였다.

신간회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성원들과 애국적학생들을 망라하여 조직된 광주학생운동옹호동맹지도본부는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하자 진상조사와 일반적인 격문작성에만 몰두하면서 전국적규모에서 벌어지는 청년학생들의 운동에 정확한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전국적인 항쟁에 대하여 론하면서 각 학교의 학생대표들에게 《...먼저 학교에 대한 맹휴조건으로서 형식상 진정서를 제출하고 선동연설을 하며 만세를 부르면서 교문을 벗어나 시위운동을 진행할것, 얼마간씩 사이두고 대렬을 지어 행진한다면 시위운동의 목적은 달성하는것이고 만약의 경우 교문을 벗어날 때에 경찰관이 제지한다면 맹휴로서 그치며 해산해버려도 민심을 소란시킨 목적은 달성되는것이다.》고 지시하였다.((불온격문 산포사건검거의 건》일문 제17268호 18페이지)

보는바와 같이 광주학생운동옹호동맹지도본부는 학생운동의 목적을 뚜렷하게 제기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투쟁의 목적을 《민심을 소란시키는것》으로 국한시켰다.

이것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해 피와 생명까지 바쳐 싸우려는 청년학생들의 투쟁의지와 각오와는 거리가 먼것으로서 운동지도층의 계급적 제한성으로부터 출발한 소부르쥔아적소심성과 평화주의, 우유부단성의 직접적표현이었다.

광주학생운동의 전 과정은 청년운동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

자면 반드시 로동계급의 당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정도를 받아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광주학생운동의 교훈은 둘째로 혁명운동에서 승리하자면 종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광주학생운동당시 종파분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은 그 지도층에 머리를 들이밀고 이 운동을 저들의 야욕실현에 리용하려고 책동하였으며 종당에는 투쟁을 실패로 이끌어 갔다.

우리 나라에서의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책동이 강화되고 모든 형태의 반일투쟁이 비법화된 당시의 조건에서 합법적성격을 띤 신간회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였다면 성과를 거둘수도 있었다. 그러나 종파분자들은 신간회안에서 로동계급의 정도적역할을 거부하였으며 로동동맹에 기초한 반일민족통일전선 그자체를 반대하였다.

엠엘파를 비롯한 종파분자들은 《모든것은 신간회를 통하여》라는 구호밑에 로동운동과 농민운동을 그속에 용해시키려고 하였다. 그들은 《...신간회는 모든 체국주의를 반대하는 계급이 자기의 요구를 가지고와서 다른 동맹자와 같이 투쟁하는 장소에 불과하다. 그 누구라도 여기에서 헤게모니를 운운하는것은 무의미한 동시에 또한 불가한 일이 아니면 안될것이다.》고 하면서 로동계급의 정도적역할을 거부하였다.((리론투쟁》 1928년 3월호 21페이지)

종파분자들은 자기 파벌의 《혁명성》을 시위하기 위하여 제멋대로 투쟁을 조직하여 학생들이 무모한 희생을 내게 하였으며 반대로 자기 산하의 력량을 보존한다고 하면서 투쟁에 일떠선 청년학생들을 해산시키는 행동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민족개량주의자들은 학생투쟁이 일제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한도에서 온화한 합법적호소에 그치도록 하였으며 자기들내부에서 서로 반목질시하고 다른 파의 행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제경찰에 사전계획을 밀고하는 행위까지도 감행하였다.

그들은 12월 5일 경성(서울)에서 반일시위투쟁을 계획하고는 그에 앞서 2일과 3일 뼈라살포를 조직함으로써 일제경찰에 사전탄압의 구실을 주었으며 12월 5일 전국적인 학생운동을 일으킬 과업을 조선청년총동맹과 조선학생전위동맹산하 학생대표들에게 주면서 《...경찰관의 경계가 엄중하다면 그 마당에서 해산하라.》고까지 하였다.((불온격문산포사전 검거의 건》 일문 제17268호 24페이지)

광주학생운동이 벌어진 전기간에 발로된 종파분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책동은 파벌을 청산하고 대오의 사상의지적, 조직적단결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승리를 거둘수 없다는 교훈을 남기였다.

광주학생운동의 교훈은 셋째로 혁명운동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청년운동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하나로 결합되어 통일적과정속에서 진행되며 강력한 무력적담보밑에 전개되어야 한다는것이다.

당시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였고 따라서 반일투쟁은 우리 인민앞에 나선 선차적이고도 중요한 과업이었으며 청년학생들만이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공통된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었다.

그러나 학생운동지도부에 들어앉은 종파분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은 학생운동의 전국적규모에로의 확대를 한사코 반대하였으며 부산방직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벌어진 노동자, 농민들의 연대성투쟁을 학생운동과 결합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청년학생들의 반일투쟁과 노동자, 농민들의 반일투쟁은 하나의 통일적과정에서 진행되지 못하였고 종당에는 각개격과되었으며 얼마든지 거둘수 있었던 성과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일제의 탄압에 무장으로 맞서지 못한것도 광주학생운동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인 반일투쟁으로 발전하자 일제는 전국에 비상경계망을 펴고 경찰들과 함께 2개 연대의 정규무력까지 동원하여 적수공권의 조선학생들을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일제는 경찰들과 기마경관대, 경찰관강습생, 재향군인단, 청년단, 소방대원들을 기관총과 보총, 권총과 일본도로 무장시켜 투쟁진압에 내몰았다. 1930년 1월 15일과 16일 사이에 경성(서울)청년학생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동원된 경찰의 수는 매일 1 700여명에 달하였고 동원된 자동차수는 140여대나 되었다.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고조되자 일제는 완전무장한 2개 연대의 군대병력까지 동원하였으며 50여명의 학생들을 학살하고 1 600여명을 검거투옥하였다.((최근에 있어서의 조선의 치안상황》일본 1934년 참고)

광주에서의 일제의 탄압만행에 대하여 당시의 한 출판물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현재 광주는 계엄상태에 빠지고 조선인 대 일본인의 처참비장한 시가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곳저곳에 널려있는 붉은 피가 랑자한 시체는 거리에 2중, 3중으로 쌓여있다. ...》(《광주학생사건과 그 영향》일본 총독부경무국 1929년 38페이지)

그러나 청년학생들은 일제의 반혁명적폭력에 혁명적폭력으로 맞설만 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일제의 류혈적인 탄압을 막아내지 못하고 투쟁은 실패로 끝나고말았다.

3. 결 론

탁월한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한것으로 하여 실패와 좌절만을 겪어야 했던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때로부터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일찌기 청년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묶어세우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혁명의 해불봉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고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년대들을 영웅적위훈과 자랑스런 승리로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한 우리 혁명의 1세대 청년들은 실천투쟁속에서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으며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웅적으로 싸워 승리의 7.27을 안아온 청년들은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당과 수령을 앞장에서 받들어 어렵고 힘든 전구들마다에서 세인을 경

탄시키는 위훈을 세웠다.

류레없이 엄혹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장군님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할 철석의 신념으로 가슴불태우며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주체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우리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에 이룩한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은 수령을 우러러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조국의 부강번영도, 청년들의 보람찬 삶도 있다는 고귀한 철리를 력사에 뚜렷이 새기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의 정갈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단련하고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배짱과 신념을 키운 청년전위들은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계승자들이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들이라고 하시었다.

반만년의 우리 나라 력사에 청년은 어느때나 있었고 이름을 날린 청년들도 있었지만 오늘의 시대처럼 모든 청년들이 당의 청년전위라는 고귀한 영예를 지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떨치는 보람찬 청춘의 시대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의 청년들은 청년중시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고 모든 청년들을 따뜻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억세게 키워주는 위대한 우리 당의 품속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새로운 최전성기를 펼쳐나갈것이다.

실마리어 학생운동, 반일투쟁, 노예교육